대한복싱협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아래의 정관 위반 사실 및 구조적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소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1. 국가대표 총감독 채용 시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회피 의무' 위반

1) 대한복싱협회 정관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의 1항 4에 따르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제39조의2의 2항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2020.01.2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스스로 해당 사안을 피해야(회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당시 경기력향상위원회(2024년 12월 4일, 제14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천O성 위원은 국가대표 총감독 지원자인 김O상 감독(경남도민일보, 2007년 7월 10일자, "복싱 소녀 천O경 21전 21승 무패가도" 참조, 출처: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167, 검색일: 2026년 10월 17일,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838 검색일: 2026년 10월 17일)과 마산형제복싱체육관 소속이자 마산대학교 김O상 감독의 제자) 즉, 천O성 위원(개명 전 천O경)은 김O상 국가대표 감독과는 스승과 제자(사제) 관계라는 특수한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2. 경기력향상위원의 심판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및 자격 검증 요구

1) 지도자 및 국가대표 선발 권한을 가진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현장에서 선수의 판정을 좌우하는 '심판(저지, 래프리)'을 겸직하는 것은 심각한 권력 독점이자 구조적인 이해충돌을 유발합니다.

2) 자신의 스승(김O상 감독)의 면접에 참여는 천O성 위원의 사심(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복싱협회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으며, 현재 함안군복싱협회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데, 대한복싱협회 정관 규정 조차도 숙지하지 않고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국체전은 선수들의 입상 경력은 진로 및 국가대표 선발전 입상 실적(대한복싱협회가 9월23일 "U19/U17/U15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안내 공지문"

의 선발전 세부조항 3번: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경기실적(객관적 사유) 및 국제경쟁력 및 육성 필요성 등(주관적 사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 결과로 복싱 종목의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4) 이렇듯,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은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선수까지 선발하는 과정 참여하여 심의 및 결정을 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의 입상 실적은 국가대표 선발에 객관적인 경기실적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인 천O성 위원이 국가대표 선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심판 판정이 가능할까요?

5) 대한복싱협회 정관에서 정한 회피 의무도 준수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면접에 참여한 천O성 위원이 현재 진행되는 전국체전에 심판으로서 사심 없이 중립적으로 경기에 심판 판정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6) 사적 이해관계로 행정 파행을 일으킨 천O성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후원하는 공식 대회”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판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해당 인물에 대한 엄격한 심판 자격 검증을 요구함과 더불어, 대한복싱협회 정관 조차도 숙지하지 않고, 최고의 권한을 심의 의결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인 천O성 위원을 즉시 심판 배정에서 제외시켜주십시오.

3. 경기력향상위원회 및 심판 규정 개선 조치 촉구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고 체육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현직 심판 활동 겸직 금지’ 조항을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여 전면적인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건은 상급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민원 접수 및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싱에서 심판 판정은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회 차원의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